朝鮮日報
夕刊
一日(日)
本紙朝夕刊二十二頁
發行所 朝鮮日報社
編輯人 方應謨　發行人 [illegible]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十一

社說 安岳人士의 育熱
高普期成運動大進展

一

安岳의 巨族, 金氏 家門中에서 金庸震, 金鴻亮, 金河亮 三氏가 安岳高等普通學校의 設立을 爲하야 各十萬圓式을 提供한 以來로 去二月二十六日, 同高普期成會發會式을 보기까지 二旬이 채 못 되어 安岳人士의 同地高普設立을 爲한 醵金은 벌서 四十萬圓을 超越하거 數千圓의 大盛況을 呈하얏다. 그後, 今日까지 約五日間의 醵金이 다시 어느 程度로 進展 되엿는지 모르거니와 이 趨勢대로 繼續된다면 向後 二旬을 넘기지 아니하고 豫定金額 六十萬圓을 훨신 超過될것으로 推測된다. 安岳人士의 此擧는 社會的, 民族的으로 두가지 큰 意義를 가지는것이다. 첫재는 同地方人士들이 敎育의 必要를 참으로 깨다랏다는 一點이오, 둘재는 同地方人士들 朝鮮에 잇서서 드물게 보는 共働協力의 精神을 充分히 發揮하고 잇다는것이다.

二

現下 우리 朝鮮이 經濟의 必要를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實際實行을 보면 그와 背馳되는 일만 하드시, 敎育에 잇서서도 입으로는 그 必要를 누구나 말하면서도 그것이 行動으로 나타나는 方面을 보면 다 敎育가튼것은 必要없다는듯한 行動뿐이다. 一社會를 드러서 이러한 寂寞속에 處한 今日에 잇서서 安岳人士들만은 참으로 子弟敎育의 必要를 깨닷고 同郡內의 普通學校의 施設에 잇서서는 이미 一面一校制를 二三年前에 實現햇고, 이제 또 普通學校敎育의 延長의 一策으로 男女兩個高等普通學校設立의 旗幟를 들고, 于先, 第一着으로 男子高等普通學校의 設立을 計劃한것이 卽, 今番의 斯擧다. 그러나 우리가 過去에 溯及하야 安岳의 過去를 살펴본다면 朝鮮新文化輸入初期인 今三十年前에 벌서 同地에는 楊山中學이라는것이 잇섯고, 또當時의 學者이면서 有志인 故崔光玉先生이 세운 楊山學校도 잇섯든것이다. 此兩校는 時運의 轉還에 際하야 廢校의 厄運을 免치 못하엿스나, 此等의 史蹟을 본다면 安岳人士가 남다르게 敎育의 必要를 느끼는것은 決코 一朝一夕의 偶然한 일이 아님을 알것이다.

三

다음 朝鮮이 第一缺點으로 하는바는 共働協力的精神의 缺如다. 朝鮮사람은 獨力으로 한事業을 爲하야 能히 百萬圓을 던질수가 잇스나, 十人或은 百人의 合力으로 내라면 單十圓을 내지 못하는 缺點이 잇다. 今日까지 一人의 힘으로 된 記念館 又는 學校는 잇섯스나, 여럿의 힘을 모아서 하려든 計劃은 十三年前의 民立大學設立計劃의 失敗를 筆頭로하야 모조리 失敗하고말엇다. 그런데 今番, 安岳高普設立의 [illegible]

西에 잇서서는 一部內가 全部 地를 가진 人士는 土地를, 金을 가진 人士는 金을 [illegible] 드려서 富貴貧賤의 別이 업시 各各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 것은 眞實로 [illegible] 共働協力精神의 [illegible] 發露라고 할것이다.

四

우리는 安岳高普의 年內設立을 期待한다. 첫재 同地人士의 熱誠의 程度로 보아 그것을 미들수가 잇고, 둘재로 同地人士의 [illegible] 金氏家門以外에 [illegible] 三四人이나 잇는 [illegible] 그것을 미들수가 잇고, 또한 [illegible] 어찌 [illegible] 못하는 [illegible]

[illegible] 이가 나설 수이 어찌 못할것으로 [illegible] 하야 [illegible] 年內로 [illegible] 보는 날이면 그 [illegible] 에 [illegible]하야 各方의 高普設立의 [illegible] 安岳一地方만의 [illegible] 아니라, 이에 [illegible] 一大[illegible]이 될 [illegible] 잇다.

軍部가 原型맨들고 그後에 政治的工作
首班은 從來대로 西園寺公에 下問乎
數日內成立은 豫想難
後繼內閣은强力內閣

【東京電話電通】 岡田首相의 生存은 各方面에 意外의 感을 이르켯는데 이에 依하야 政局의 推移에 또다시 變更을 生할과 如한일은 斷然코 업슬듯하다 그리고 後繼內閣에 對하야는 主로 軍部方面의 意向에 依하야 原型이 形成되여 그後에 政治工作을 施할듯하다 後繼內閣組織者의 人選에 對하야는 眞正하게 擧國一致的强力內閣을 組織함에 足한人物을 物色하야 이에 後事를 托함이 必要하고 적어도 一部에 偏한다든가 또는 一勢力만에 依함과 如한 일은 絕對로 此를 避하고 全혀 擧國一致의 實을 備하야 强力內閣으로서 內外에 자랑할만한것이 되여야겟다고 하고잇다 그리고 後繼內閣組織者에 對하야는 從來대로 今回도 또 西園寺公에게 御下問할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 西園寺公도 또한 奉答에잇서서는 以上의 觀念을 基礎로 하게될것으로 뵈인다

山本、淸浦、湯淺、平沼 近衛、若槻氏中組閣
內府에 皇族殿下御就任?

【東京電話同盟】 事件도解決되여 平靜하게되엿슴으로 岡田內閣總辭職에 伴한 後繼內閣及齋藤內府急逝에 伴한 後任問題를 元老重臣側에서 愼重考究하고잇는데 內大臣의 職責은 常時輔弼의 重任을 負하는것임으로 速히 決定되리라고 觀測되는바 西園寺公과 湯淺宮相과의 間에서 協議되고잇는 模樣인데 皇族殿下의 御就任을 仰할것이라는 意見도 有力하다 그리고 後繼內閣에 對하여는 西園寺公의 意見에 依할것이나 原則으로 重臣方面의 意向도 聽取하야 愼重時局의 推移를 考慮하야 人格者로 眞正한 擧國一致强力內閣을 組織할수잇는 人物을 奬薦하리라고 觀測된다 目下 下馬評에 올나 잇는이는 山本達雄男、淸浦奎吾伯、湯淺倉平氏、平沼騏一郎男、近衛文麿公、河合操大將等인데 一部에서는 山本英輔大將、又는 若槻禮次郞男이 物議되엿다

政府聲明

【東京電話同盟】 政府는 一日 閣議에서 今回事件에 關聯한 民心을 安定케하기爲한 聲明을 發布하기로決定하고 同日午後三時半 左와如한 聲明을發表하엿다
去二月二十六日早朝 東京에서 不意의 大不祥事件이 勃發하[illegible]

[illegible] 緊急閣議[illegible] 必要가잇다는데 意見이 一致하야 [illegible] 그리고 閣議의 結果 民心安定에 關하야 何等의 方策을 取할模樣이다

宮中서 緊急閣議

【東京電話電通】 不慮의 危難을 免한 岡田首相은 二十九日夜에 後藤內相 小原法相 內田鐵相等과함께 宮中에서 宿泊하엿다 町田商相兼藏相을 臨給하야 一日午前十時 前後하야 各各 宮中에 參內하야 十一時後부터 緊急閣議를 開催하고 首先 川島陸相으로부터 本件惹起後의 情勢에 對하야 報告한다음 後藤內相으로부터 全國의 治安維持는 完全히 實現되여잇다는 旨를 報告하고
一、民心安定의 方策
一、財界安定의 措置
等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는데 財界의 情勢는 極히 平靜하야 全國이 모도 何等變動된바업섯다 한 事態가업슴으로 暫時推移를 [illegible]

蘇、陸海空大部隊를 極東方面에 移動
日本軍의 大陸進出을 蘇駐英大使館言明

【倫敦二十九日發同盟】 蘇聯政府는 日獨同盟條約說의 外交煙幕下에 드디여 佛蘇援助條約締結에 成功하얏는바 條約調印은 確實케되에 따러 西歐方面의 國防力을 緩和陸海空三軍 大部隊를 急速極東方面에 移動할方針으로 解釋된다 倫敦海軍會議關係側의 消息에 依하면 蘇聯政府는 最近 갑작이 極東의 事態가 急迫化하엿다는 見地에서 目下 多數 潛水艦을 解體하야 陸路 西伯利亞鐵道經由로 海參威에 向하야 輸送하고잇다 同時에 西伯利亞方面에在한 空軍을 强化키爲하야 續續軍用機를 西伯利亞에 移動하고 잇는듯하다 極東에在한 三軍의 集中을 釋明할 倫敦駐箚蘇聯大使館當局도 二十九日午後 左와如히言明하얏다

佛蘇協定成功의 結果

日本에서 穩健한 政府가實力을 獲得치못하는限 日本軍은 近日亞細亞大陸에 向하야新規의 行動을 開始하게될것이다

園公非常히 沈痛
政客의 往訪은 絕無

【興津電話同盟】 西園寺公은 目下坐漁莊에서 靜養하면서 極히 平穩하나 從來의 政變時에 잇서서는 政客의 往訪이 非常히 頻繁하엿슴에도 不拘하고 今回에는 政客의 往訪이 絕無狀態이다 다만 原田熊雄男이 老公의 身邊에서 겨우 東京에서오는情報를 報告하고 잇슬뿐으로 邸內는 實로 閑寂하다 老公은 非常히 沈痛하야 萬若 陛下의 무르심을 바드면 如何한 일이 잇드라도 卽時 上東하야 粉骨碎身하야 最後의 御奉公을할 決心을 鞏固히하고잇는바 이미 上東準備도 整齊되엿다는 模樣이다

한 그常態를 일치안흔것은國家를 爲하야 不幸中多幸이엿다 只今 事件은 鎭靜되엿슨즉 朝野 다함께 擧國一致로 自戒하고 謹愼하야 國民의 本分을 다하기를 切望하는바이다

야 上으로는 宸襟을 奉慰케하고 下로는 人心에 動搖를 이르키게 한것은 實로 恐懼不堪하는 바이다 同時에 事態를 이에 밋게한 責任이 重且大한것을 痛感하는바이다 事件은 따러 內外에 不安을 惹起하엿든

國家가잇서스므로 政府는 卽時 戒嚴令의 一部를 施行하야 秩序의 回復에 努力하고 皇軍의 힘으로 暴擧는 鎭壓되엿다 이는 오로지 御稜威에 依한것이며 國民도 異變에 處하야 一般이 冷靜한 態度를 가지고 經濟界도 또

健全財政方針은 現情勢론不可避
公債市價保持上으로도必要
◇大藏省當局堅持

【東京電話同盟】 金融經濟界에 어 [illegible] 아모리 [illegible]하야도 必要하다고 一般의 [illegible] 財界에 [illegible] 上의 [illegible] 綜合하면 [illegible] 나 現在의 經濟 [illegible] 잇서서는 어떠한 內閣이 되든지 財政 公債漸減方針을 堅持할 今後 公債市價를 維持함에

는 아모래도 必要하다고 아니되지고 國內로는 金利가 低下하는 이번 事件에 [illegible] 影響이 [illegible] 事件에 對하야는 公債市場에 [illegible] 財界로 [illegible] 安定할것으로 觀測한다

大藏省財政方針

【東京電話同盟】 事件에 伴하야 [illegible] 東京側의 [illegible] 今日까지 [illegible]에 依하야 [illegible]

앗는바 治安의 完全한 回復에 伴하야 漸次 平常으로 復歸될 希望이 잇게되고 金融界도 外貨公債市場도 一時的反落後 直時 反撥傾向을 보이어 此際 金融 [illegible] 一掃하얏다 爲替市勢도 海外의反響이 冷靜하야 [illegible] 에 基한 [illegible] 全然 [illegible]

아 影響은 輕微하며 金融界의 [illegible] 動向에 關하야서는 財務當局도 [illegible] 그리고 今後의 財政經濟政策은 [illegible] 注目되고잇는바 인데 어에 關하야서는 勿論 後繼內閣의 如何에 依하야 影響을 受할것인데 金融界 [illegible] 에는 何等 [illegible]가 업고 [illegible] 의 公債政策에 對하야서도 그 要望은 市場 消化力의 [illegible] 잇고 이消化力의 [illegible] 의 操作이며 國防 그[illegible] 에 [illegible] 國際支出의 [illegible] 키여한 從來財務當局이 取하고 잇든 公債의 年次發行額減方針은 依然 財務當局에서 堅持하

고잇는바 將來 一般的增稅를 前提로 地方 及 中央으로서 行할 稅制整新改正은 今後 考慮研究될것은 當然하려니와 經濟界에 急激한 影響을 反하야 進展하고잇는 產業貿易의 前途에 큰 障害를 與할과 如한일은 當然 考慮되고잇는 財政經濟政策의 財源으로 그 當初의 豫想的態度에 立할것은 明瞭하고 單只 從來의 所謂 高橋財政의 일홈으로 旣定路線을 堅持하고 悲觀的態度로 愼重한 態度를 取하야 經濟界의 激變은 어대까지든지 避하면서 이 事態에 任하려하고 잇다

國際金融에 波及影響
大藏省重視

【東京電話電通】 大藏省에서는 이番의 事件이 國內와 國際金融에 주는 各方面의 情勢에 關하야 至大한 關心을 주고 이것이 財界에 밋치는 惡影響을 될수잇는대로 避키로 되엿다 卽
(一) 國內金融界는 各市場休業銀行이 事實上의 營業休止로 되엿슴에 兌換券은 一時的으로 膨脹하고 日銀貸出은 急轉하엿스나 動搖가 업다
(二) 爲替는 正金이 對米二十九弗 對英一志二片으로 無制限히 賣應하엿슴에 安定을 보엿다
(三) 一般公社債는 事件當報를 보고 倫敦 紐育이 모두 廿六日은 急落하야 六分半利米貨債는 二十五日의九十五弗에서 二十六日의九十一弗 五分半利米貨債는 二十五日의 八十八弗이 二十六日八十四弗四分一로 떨어젓다가 二十八日은 事件某觀한때문인지 모두 四分一乃至二分一로 回復하고强調를 示하엿다
回復하고 强調를 示하엿다 悲觀할材料도 업슴으로 目前에 大藏省에서는 目下 海外에對하야 何等 積極的 方策을 講究할 必要가 업다는意向이 잇다

米日爲替軟調

【京城二十九日發電通】 二十九日의 米日爲替는 繼續하야 軟調로 前日보다 七仙低의二十八弗八十九仙가량에 止하엿다
【京城二十九日發同盟】 二十九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하면 賣二十八弗九十二仙으로 十四仙低 買二十八弗九十仙으로 十二仙低

英日爲替軟化

【倫敦二十九日發電通】 二十九日의 英日爲替는 僅少한 軟化의 傾向을 보혀 午後七時 裏書의 市中銀行爲替는 一志二片六十四分五十九 卽六十四分一低로되엿다

東株休會繼續?
新內閣成立까지 目下形勢를觀望中

【東京電話電通】 休會中의 東株는 形勢觀望中으로 新內閣이 成立하기까지 或은 休會를 繼續치안흘가 觀測된다 休會에 關係者의 話題가 되어잇스나 아즉 具體的交渉이 업다 市場空氣는 모두 十圓乃至 二、三十圓의 暴落을 免치못할 狀態로 되야 再開치안흘수업슬 境遇에는 總解合을 實行하게 업슬터 이대로 人心이 平靜케되고 十[illegible]內外의 [illegible]에 不過할 可望이 잇게되면 追證을 徵收하는 程度로 開場하게될것이며 大阪、京都其他各地도 모두開始를 一齊히 하기로되엿다 金融界方面에서는 此際 株式市場을 安定케하기爲하야 援助할意向이라고한다

米貨日本公社債 뉴욕一齊反撥

【紐育二十五日發電通】 東京事件以來 觀察하든 米貨日本公社債市勢는 二十九日에 反撥하야安定氣配로 六分半及 五分半 政府公債는 各各 二分 一弗高에 止한바 社債中에는 反撥 特히 顯著한것은 東京五分半 利債로一弗八分七高 大同電力債 六分半 東邦電力 各各 一弗高 其他는 모두 弗騰하엿다

今日本紙四面

世界通史

二、二六事件

二月二十六日 午前六時 麻布第三聯隊와 千葉步兵旅團의 一部는 叛亂을 이르키어 永田町一帶 警視廳 內務省 參謀本部 東京警備司令部等을 占據하는同時에 岡田首相 高橋藏相 齋藤內府 鈴木侍從長 渡邊敎育總監 牧野伯等을 襲擊하엿든바 高橋藏相 齋藤內府 渡邊敎育總監은 殺害되고 鈴木侍從長은 重傷을 當하엿다 岡田首相도 처음에는 殺害되엿다는 報道이엿스나 其實 生存하여잇스며 判明된바에 依하면 義弟 松尾大佐가 代身殺害되엿다

東京에 戒嚴令

事態危急하매 따라 政府는 二十七日 東京의 治安을 維持하기爲하야 戒嚴令의 一部를 緊急勅令으로 發表하고 香椎中將을 戒嚴司令官에 任命하는 同時에 近衛師團 第一師團平時在東部隊及 在近部隊의 一部를 戒嚴司令官의 隸下에두어 東京의 治安維持에 當케하엿다 戒嚴司令部는 卽時 叛亂部隊를 包圍하고 歸順을 懇諭하는 一方 라디오로 國民에 警告하야 民心의 動搖를 防止하기에 努力하고잇섯다

交通取引停止

戒嚴令下의 東京市를 中心으로한 交通機關도 한동안은 一大異變을 惹來하야 市內의 諸電車는 勿論 市外로 通하는 電車도 거이 運轉이 中止되여 잇섯스며 各鐵道線路도 品川 新橋를 臨時停車場으로 하야 乘客의 乘降을 上記二驛으로 制限되엿섯스나 二十九日에 이르러서는 모도 原狀으로 回復되엿다 이 事件은 財界에도 一大混亂을 이르켜 東京市內各銀行과 取引機關은 勿論 朝鮮에잇서서도 各取引所가 休業을 不得已하게되엿다

叛徒全部歸順

香椎戒嚴司令官은 最後까지 平和手段을 다하야 各部隊長은 二十六日以來 麴町 永田町一帶를 占據하고잇든 叛亂部隊에 對하야 再三 各各 所屬部隊로 復歸하기를 勸告하엿스나 最初에는 應하지 아니하엿기때문에 一時는 不祥事態의 勃發이 거이 不可避한 情勢를 示現하고잇드니 마침내 二十九日午後三時 叛亂部隊는 全部 原隊로 歸順을 終了하게되여 茲에 事態는 漸次 安定되게 되엿다 따라 政局收拾에 關하여는 各要路에서 急速 協議를 進行하리라고 觀測된다

佛蘇條約批准

二十七日 佛國下院은 오래동안 懸案으로되여잇든 佛蘇相互援助條約批准案을 三五三對一六四의 壓倒的多數로써 可決하엿다 이것으로 歐州의 國際關係는 大戰以前의 關係를再現하게되엿스니 獨逸은 佛蘇의接近은 白 [illegible]

國의 國防安全을 [illegible] 이라하야 [illegible] 要求하는 一方 英太利와 伊太利間에 [illegible] 日本도 [illegible] 軍備强化를 [illegible] 하고 잇스니 今後의 國際外交는 如何한方向으로 展開될는지 그 歸趨는 자못 注目되여잇다

伊軍縮調印拒絕

伊太利政府는 二十七日 四國軍縮會議調印拒絕을 公式으로 言明하엿다 伊太利의 調印拒絕은 國家와 對伊制裁를 撤回치 안는 限 條約을 締結할수업다는것이 그 眞意이나 이것을 갈흡하기 爲하야 左記條件을 擧하엿다。
一、[illegible] 三萬五千噸 十四吋
二、一萬噸及 二萬噸의 [illegible]를 中止한다는 條項에도 反對함
三、其他 專門的 問題에도 受諾키 困難한 事情이 有함

東株二日도休會

【東京電話電通】 東京株式取引所에서는 午後三時부터 重役會를 열고 取引員組合側과 協議한 結果 三月 一日의 市場立會를 繼續하야 臨時休會하기로 決定하엿는데 二日以後의 立會開始에 關하야는 二日에 다시 決定할터이다

▲東株組合員總會延期 【東京電話同盟】 二十九日열기로豫定이든 東株市場取引員組合總會는 開催不能이 되엿슴으로 組合首腦部가 協議한 뒤 三月一日午前十時까지 延期하기로 決定하고 다시臨時總會에 잇서서 特別委員協議會를열고 短期取引의善後策을 協議하기로하고 二日立會의前後場을 모다 繼續하야 休會하기로되엿다 그리고 當限乘替問題에 關하야 二十九日 正午 坂常務理事는 商工省에 出頭하야 諒解를 求하엿다

人事·集會

▲安昌浩氏 湖南方面旅行中이든바 昨夜入京 中央호텔投宿
▲金東元氏(本社顧問) 崇中問題로入京 中央호텔投宿
▲金秉河氏 一日入京來社

八面鋒

◇佛蘇援助條約의 成立確實로 蘇聯은 陸海空兵力을 極東으로 大量移動한다는說!
◇佛蘇條約은 나치스獨逸의 脅威에 對한制動機로, 極東兵力은 日本에 對한 방패로하려는것!
◇條約의 「방패」的 性質如何는 現代外交史가 새로운 解釋을 提起하는 流行의 命題이뇨!

링 질 중하대
오케링
靑山堂 東論 新發明劑
정가 一경(?) 二[illegible] 오·원 [illegible]
五大特長
一. 藥毒을아니쓰지안니하고
二. 비위를상하지안니하고
三. 속히오줌으로잘나려가니
四. 앨호저엘니하고
五. 묘음이곳곳치나속히완치된다
元賣發 京城光化門通 靑山製藥社 振京18135·電光1171

正木式製材機
創業明治廿七年 最古의 歷史 最新의 機構
代理店 松本商會機械部
營業所 京城府古市町十四番
電話長本(2)0320番
京城府黃金町三丁目 工場

개량담배대
便利하고 價格이 廉하야 京城에서 流行되는 개량담배대
製造發賣元 京城府鍾路三丁目九六
德昌工業社
型錄及定價表 送呈합니다

速修 英語講義錄
우리朝鮮人本位의 唯一한
▲朝鮮文으로解釋된까닭에 發音이 正確 (內容見本郵送(要二錢切手))
京城府樂園洞五五 英語通信研究會

돈버리大王
리도ー式 膨脹機
五合의米와 옥수수가 八升의菓子가된다
新型各種 가디로구進呈 製菓法傳授
大阪市 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二五九八

恩給
長期低利 立替 他에比較하야 最有利 信用으로 勞苦의 特色을 照會하시요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業業○勤人學生團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旗 カメヤ旗店
優勝旗 會旗 校旗 團旗 宣傳旗 社旗
京城府黃金町五丁目 電話本局 一五八五番 東洋 一三四八番

記念用 印入タオル 賞品用
優勝旗 國旗 會旗 校旗 團旗 附屬品一式
型錄請求次第 無料送呈
印祥天
京城府長沙洞八拾五番地 電話光 一三二八 振替京城二〇六四八
東洋染織捺染部

世界一正しい仕事は此のセイコーシャの時計　セイコーシャいつも正しい
市價三分の一投賣
最品付一掃大賣出し
Ⓢ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東京市芝區·上高合二ノ六二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特別提供 最品付 (向ふ一ヶ月間)
(1) 正十八金側時計一個購買毎にサック入一個無代進呈します(高級舶來品)
(2) 五円以上の品一個購買毎に新ダイヤ石入プラチナ指環一個無代進呈
(3) 時計一個購求の方は上の品を代金引換で無料差上げ
注文の際送金は(1)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に拂込か小爲替に願ひ升 (2)代引注文は三割以上內金を要し、(3)前金注文は送料弊社負擔 代引は注文主が四拾錢負擔 他は絕對取扱ません

正十八金側懷中 ウオルサム・エルジン 十五ケ年保險付
イ 七實石(市價八十圓ノ品)只の 三七・〇〇
ロ 七實石(市價九十圓ノ品)同 三八・五〇
ハ 十五實石(市價百廿圓ノ品)同 三九・五〇
ニ 十五實石(市價百四十圓ノ品)同 四三・五〇
ホ 十五實石(市價百六十圓ノ品)同 四五・〇〇
ヘ 十五實石(市價百八十圓ノ品)同 五六・〇〇
ト 十七石(市價二百圓ノ品)同 六〇・〇〇
チ 十七石(市價二百廿圓ノ品)同 六八・〇〇
リ 十七石(市價二百四十圓ノ品)同 七〇・〇〇
ヌ 十七石(市價二百六十圓ノ品)同 八四・〇〇
ル 十七石(市價二百八十圓ノ品)同 [illegible]
ヲ 十七石(市價三百圓ノ品)同 [illegible]

(16型) 正十八金側懷中時計(瑞西製)
イ 七實石(市價六十圓品)只の 二七・五〇
ロ 七實石(市價八十圓ノ品)同 三一・八〇
ハ 七實石(市價百圓ノ品)同 三五・六〇
ニ 十五石(市價百廿圓ノ品)同 四〇・〇〇

● クローム側懷中 ウオルサム・エルジン 米國製 (16型)
● クローム側懷中(瑞西製品) (16型)
● クローム側腕卷 五円以上各變形 (8型)(9型)(10型)(11型)
[illegible]
▲時計の王者! ウオルサム!・エルジン
▲86年の最新流行品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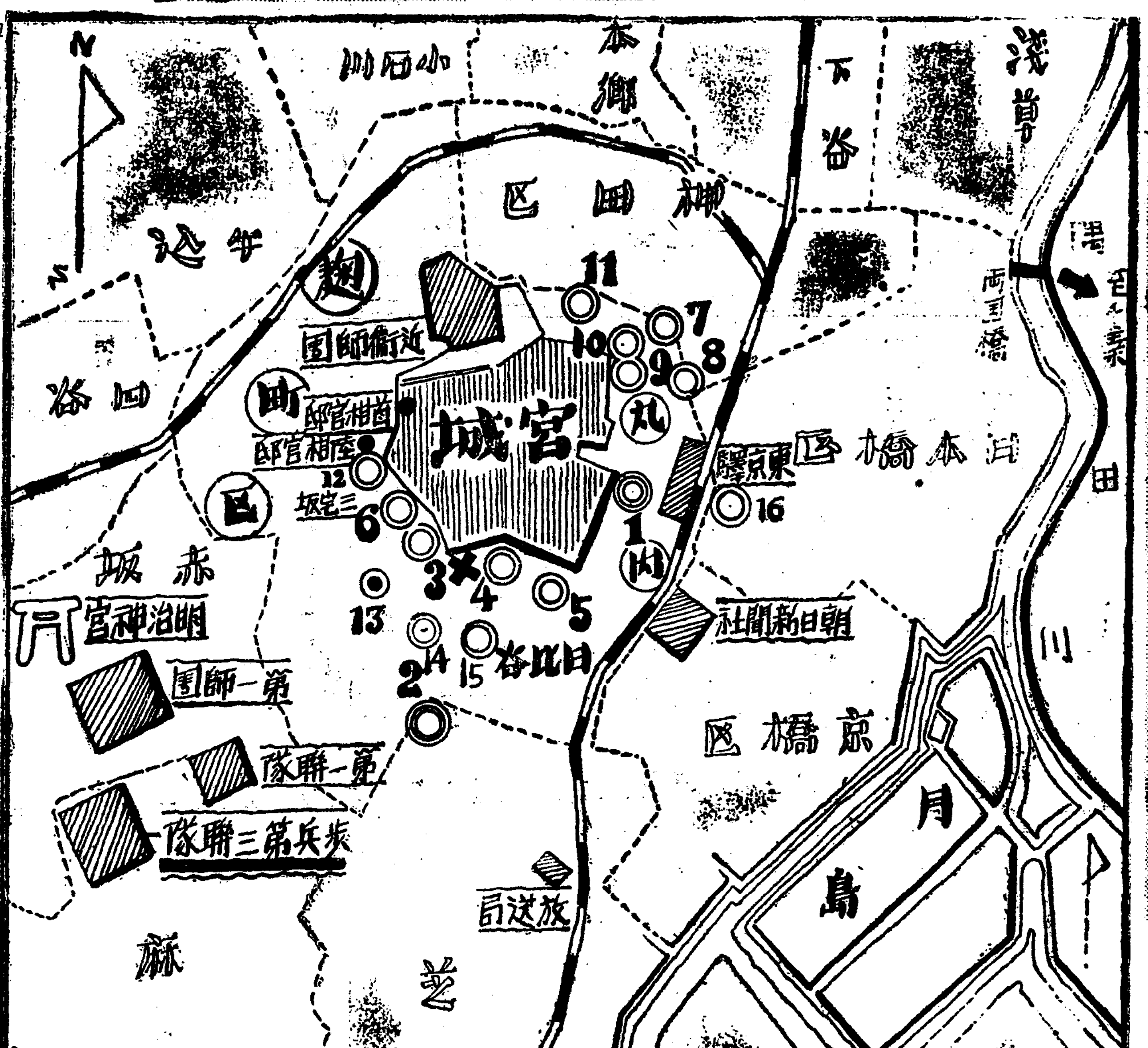
東京事件畫報

事件當日 混雜한 交通(上) 戒嚴司令部(下)

平和로復歸한東京市

重要建物

1內閣 2議會院 3外務省 4司法省 5拓務省 6陸軍省 7農林省 8遞信省 9內務省 10大藏省 11文部省 12航空本部 13新議事堂 14外務省 ×警視廳 15大藏省 16鐵道省



警視廳警官으로 殉職者는五名

大部分首相官邸配置警官

藏相官邸警官一名은重傷

【東京 一日發電通】 경시청경관으로 순직한 사람의 성명은 다음과 가티 발표하엿다

警視廳警務部警衛課 勤務(首相官邸配置) 巡査部長 村上嘉茂左衛門
警視廳警務部警衛課勤務(首相官邸配置) 巡査 小館喜代松
警視廳警務部警衛課勤務(首相官邸配置) 巡査 土井淸松
警視廳警務部警衛課勤務(牧野伯隨衛) 巡査 皆川義孝
杉並署兼麴町署勤務 巡査 淸水與四郞

▲重傷者
麻布鳥居坂署兼麴町署勤務(藏相官邸配置) 巡査 玉置英男

校長의選任은 設立者에게一任

崇實校長은牟氏副校長은朝鮮人

崇實校問題不遠解決

오래동안 끄을어오든 평양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문제는 일부학생들과 일부교수단들의 파생건으로까지에서 문제는한층더 분규를지내든중 이남국 맥군(牟三悅)박사는 어데까지라도 성의를 다하야 문제를원만하게 해결하고저 그동안루차 당국자와타협을 하여오다가 이십구일에다시마포삼열 박사와허대전(許大殿)씨가 중요회의를 발표하고 선후책을 강구한결과 주임교장선정에대하야 두 협점 성의를다하야

一、숭실전문학교교장은 선교회측의 미국인으로하고 부교장은 조선인으로임명케하고

一、숭실중학교는 명예교장에선교회측 미국인으로하고 실무(實務)교장으로조선인을 임명코저하는데 어떠켓느냐 하고 타협한결과 학무당국으로서도 학교설립자측의 성의잇는 처사가잇기를바란다고하야 전긔안을 응락하고 곳수속을 밟게 하도록 한모양이다 그런데 두 학교의 선교회측교장은 오랫동안 숭전 숭중의교수또는 교장으로도 일보아온 교육자인 모의리(牟義理) 박사로 임명케 될모양이고 조선인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치 못한모양인데 이로서 숭전、숭중의교장문제는 완선히 해결을 보게될모양 다

거리의詐欺漢被檢

이십구일오후 여덟시경 강원도 상덕군 상덕면(江原道上德郡上德面)에 본적을두고 주소가일정치못한 최원규(崔元奎)(二二)(假名)는 거동이수상하야 본정서원에게 인치당하엿는데 그는생래의 미모와 지난해의 배우생활 경험을 리용하야 거리에서 린아히들을꾀여 배우로소개한다 고 그소개료(紹介料)로 오백십원을 편취하여소비하며 때로는 동숙인의 소지품을 편취하야 유흥에썻는데 그는 시내각서에 지명수배중의 인물이라함으로 여죄가 상당히 잇스리라하야 계속취조중이라한다

南米倉町火災

금일일오전다섯시서 남미창정(南米倉町)구십이번지 삼택미길(森澤米吉)이층에서 출화하야 이층 일동(一棟)을 전소하엿는데 손해는 약 이천원가량이라하며 원인기타는 방금본정서에서 조사중이라한다

철못채리는乖候

今朝最低零下十二度酷寒!

明日부터는轉向?

오늘은 삼월일일 오는화요일은경칩(驚蟄)으로 예전부터 우수、경칩엔 대동강(大同江)물도 풀린다고하야 해마다이때가 되면 한겨울동안 어러붓헛든 대지(大地)가 훨적풀리며 봄소식이 지러오는 때이다 십여일전에는 몃칠동안 갑작히 날세가 따뜻하야 거리에는 굿게 무장하엿든 목도리 외투등의 방한구(防寒具)를 버서 버리고 활보하는사람까지 낫낫치 보이드니 칠면조(七面鳥)의 변술가티 변하는 날세는 또 다시 하강선(下降線)을그리여 이십구일아츰에는 최저온도 령하십도팔분으로 점점내려가 오래간만에 풀렷든한강에 또다시어름이 얼고바람은 몹시차서 귀바퀴를 에워낼듯하야 모처럼 일요일을 향락하려고 기다리든사람들의나다니는발길도 도로키고마럿다 이것은 고긔압과 계절풍(季節風)관계로서 례년보다 사도내지 오도가량추우나 이추위도 마지막추위로서 래일부터는 점점날세가 따뜻해저서 참으로 봄철이 완연히 닥처오리라고측후소원은 자신잇게말하고잇다

運動競技

蹴球의動作 步兵과恰似

獨逸"오"氏强調

【伯林發同盟】 獨逸스포-츠界의 巨頭로 獨逸體育協會委員長「폰·첸멜오스텐」氏는 最近 그가主宰하는 週刊雜誌「스포-츠新聞」에서「스포-츠」가獨逸陸軍의 復興에 貢獻한 보람을 주는가를 蹴兵에關한 論說中에서 말하고잇다 『그論說은國家 社會에잇서體育은國民의體力及고精神의 敎育을增進하는意味下에 維持하며 組織할것을 論하야 萬若獨逸男女의大多數가 이體力養成에依하야 體力의最高點에이르는데 成功하엿다하면 이것은國防이 社會의廣範圍에亘하야安全한基礎가 準備된것을 意味하는것이다』라고말하고잇다 그리고 이것을 證據하기爲하야 實例로 歐洲大戰의 經驗을引用하야 獨逸에서는 最初英國의敗因을 英國人이 너무「스포-츠」에 耆好한데잇다고미덧스나 大戰終了後에 이見解가 그릇된것을 覺悟케되엿다 則「善專한스포-츠맨은 善專한兵士이다」라는것이 大戰後의 獨逸에서 提唱된標語다「스포-츠」는 軍隊敎育의 廣範圍에 亘하야 適用되는것을 아럿다 『오스텐』氏의 이論說은 벌서英國에서도 『國防上의 體育訓練』이라는 標題로 擧行되여잇스며 그序論에는「모든 體育訓練及 그指導方針은 恒常國防發展에잇다」고말하고잇는데 이刊行物은 好評을밧고잇다 그刊行中에서도 가장興味잇는것은 蹴球의動作과 步兵의變形分隊와의 類似點을드러 이에比較한바 同氏의說에 依하면 蹴球에잇서 一致行動과最後鬪志等의 모든것은步兵이戰場에서 必要한것과 恰似한行動이다 그리고蹴球試合에서「석포어드」가敵을目標로 突進하는것도 彷彿하다 그리고「빽」이長蹴하는것은 砲兵의掩護射擊과가다 고말하엿다

올림픽에自轉車參加

昨年에創設된 日本自轉車聯盟에서는 第十一回올림픽大會初參加를目標로 지난卄三、四兩日間丸之內永樂俱樂部에서 올림픽·싸이클 後援會를 組織하고 選手派遣費로서 五萬圓을計上하는同時에 卄四日付로 日本體育協會에 正式加盟申請書를提出하엿다한다

바이엘·하바日本에

【伯林二十九日發電通】 第四回冬季올림픽 大會페아·피거에 優勝한獨逸의『바이엘·하-바-』組

A마라손經過

今春陸上競技의劈頭戰인 서울陸聯主催의 第十一回A마라손會는 豫定과가티 二十九日午後三時부터 光化門네거리를 出發歸着點으로 漢江第一人道橋까지의 往復코-스(約八哩)에서 行한바 參加選手는 二十一名으로서 이날은바람이불고 氣溫이 急降하야 컨디슌은자못不良한 가운데열리어 金在八(白馬)紹世元(養正)兩君이 猛烈한接戰을演하드니 紹君은앗가웁게先頭를 빼앗겨 金君이四二分五二秒로 優勝하엿다

◇往復路着順

1、金在八(白馬) 四二分五二秒
2、紹世元(養正) 四二分五四秒
3、李振燮(京城) 四三分五三秒
4、尹五龍(養正) 四四分○二秒
5、金斗仁(白馬) 四五分○七秒
6、李康明(京城) 四五分一一秒
7、邊雲植(青學) 四五分三六秒
8、崔龍杰(養正) 四五分四○秒
9、鄭壽吉(白馬) 四六分五四秒
10、孫允命(京城) 四七分一九秒
11、張壽榮(白馬) 四七分二一秒
12、金麟河(培材) 四八分○五秒
13、孫晩植(培材) 四八分四五秒
14、朴庚麟(培材) 四八分五六秒

올림픽豫選 拳鬪觀戰記(二)

本社東京支局長 金東進

싸홈은 時間關係로 入場式을省略하고 正七時 프라이級一回戰의 中野가 中部의 木村을 判定으로 이겻든를 이어 同二十分부터 시작한 朝鮮軍은 붉은 유니폼에 KOREA라고 白書한 마크를 가슴에 부첫다。 金亨中君은 이런亂雜로운 링그에는 初陣이라 第一라운드에는 좀 不利한듯하엿스나 第二、三라운드부터右스윙이 잘드러가서 結局判定으로이기니 幸先、今日의試合은全勝의記錄을 남기리라는 豫感을주엇다。 아니나달을가 밴탐의 洪在浩君 果然 左쨉으와、右아퍼컷트로 肉薄하는 橋岡의顔面集打의 左右훅으로 完全히 三回의制勝을하야 누구나다 洪君의勝利를確認하고 잇섯슴에不拘하고 審判은 延長戰을宣告하야 結局判定으로 橋岡의손을드니 滿場騷然하야 審判의不公平을 詰難하는 소리 자못요란하엿다。 朝鮮軍側은猶然히 抗議를提出하엿스나 會場側에서 審判을 條件으로 하여젓다。 橋岡은 全日本「아마추어」選手權을 가젓든이라 하며 東京代表이니 이곳에 잇슬이야 어찌할수업이 알며 하물며 玄海灘건너온 사람들이 알수잇스리요。

싸홈고레含怨 人家에放火

◇昨日麻浦洞에서

이십구일 오후다섯시쯤해서 경성부외 마포동(麻浦洞) 리문칠(李文喆)집 창밋헤다가 새끼를 싸어노코 불을질러 방화를하자 가잇섯는데 때마츰 그집주인이 이것을발견하고 불을 끄게되여 큰일에 이르지는아니하엿다 이 사실을 들은 룡산서는 곳 현지에가서 조사한결과 동막하리(東幕下里)에사는 허응천(許應天)(假名)을조사하여보니 그는 그집주인의아들 리순근(李淳根)(一)과 싸홈을하야지고 분한마음에 그와가티 분푸리를할려고 집에다 불을놋다가잡힌것이라한다

檢事는輕타고 被告는重타고

上海事件雙方上訴

중국에 주재하든 전 유길공사(有吉公使)를 사격하고 상해조선인민회부회장 리용로(李容魯)를 사살한 사실로 지난번 경성지방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바든 엄순봉(嚴舜奉)과 징역십삼년의판결을 바든리규호(李圭虎)량명은 모다 경성복심법원으로 불복공소하엿는데 리규호에 대하야 무기징역의 구형을 하엿든 향천(香川)검사도 역시 공소하엿다 피고 리규호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공소하엿고 검사는 그형이 너무경하다고 공소한것이므로 이에 대한 복심의 판결은 어떠케나 될는지 자못 주목꺼리다

安城에大火

九戶全燒一戶半燒

【安城支局電話】 일일오전네시경 안성군 안성면 장긔리(安城面場基里) 최윤주(崔胤柱)상점에서 불이나서 삼십분간에 이웃상점에까지 불길은 올마 맛츰내 인접한 상점과 주택등 아홉호를 전소식이고 두호는 반소가되다 음 당지소방조원의 진력으로겨우 동여섯시경에야 진화하엿는데 원인은 아직조사중이므로 알수업스며 손해는 일만오천원가량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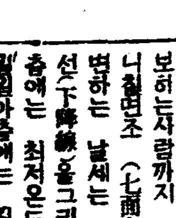
鐵道官舍窃盜逮捕

이십팔일 본정서에서는 절도가 시외아현리(阿峴里)칠번지의 칠 김게록(金珪錄)을 검거취조중인데 그는 작년십일월 본정(本町)모 상점에근무중 십이월중순경에 집으로찻다온다하고 주인을 소기고 주인의「라디오」를 절취하야 전당포에 너코그길로 사리원(沙里院) 방면으로 도주하야 그곳 철도관사(鐵道官舍)를 샅샅치뒤지고 의류기게등속을 절취하여 가지고 도주하여 버리여 그간 본정서에서 수사중이엿는데 그는 동생이 철도국(鐵道局)에 근무중임을 긔회로 철도무임승차권(鐵道無賃證)을 리용하야「스피-드」절도를 하고다니엿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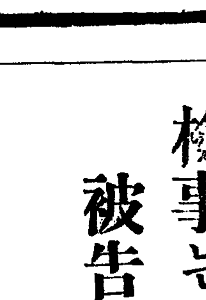
天氣豫報

低氣壓은 東海東部 八丈島方面에잇고 高氣壓은 北滿洲朝鮮에 뻐처잇는데 그勢力은 대强하다 滿洲와朝鮮은 大體로 日氣는조흐나 湖南地方及 朝鮮海峽은 눈이나리다 一般으로 季節風이 强하고 溫度는 나리며 日本內地는 흐리다 京城은 오늘개엿다 흐리며 明日도晴하다

昨日 最高 零下 三度五
同 最低 零下 十度八
今朝 最低 零下十二度八
今日 正午 零下 九度

朝鮮唯一 三週年特典生募集

最新物療全科敎授 物理醫療士責任敎授
朝鮮에도新近取締規則이發令되엿다하니 醫生特典으로開業資格을어더라는者는速히入學하라 本院은醫師同伴에有效한者고 希望者에게는學則、內容無料로申込하라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四四番地 朝鮮高等物理醫學校創立事務所

都賣會散賣
鑛山用藥品 工業用藥品 衛生材料品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藥品 有名賣藥
山崎仁壽堂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点 電光化門二五六番 振替京城八○八番

奇人奇聞의片信 동양唯一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觀相師

생선월남강
南月觀相所

果樹苗木養成販賣
定價表進呈함 開城南山町 興林農園本店 振京一五○三七

巡査看守(講義錄)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三○番 (規則書卽送)

림네오치리ン 질
京城本町四ノ一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鮮藥店百貨店에잇슴

말더듬이
京城府嘉花洞 訥言矯正院

募集 朝報案內

手術안코 오세로 눈약으로고치라
全國各藥店有함

藥 御問屋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營業案內申越進呈
電本 四○○九·一○八六 九○四○·三四○四 振替京城一六一番

李根煥大人相勳氏不幸於二月二十八日(陰二月初六日)午前五時別世玆以訃告
永訣式 三月三日(陰二月十日)午前十一時
昭和十一年二月二十九日

若草映畫劇場
ロイド 名喜劇ロイドの足が第一
ハロルド・ロイド 主演
名畫フランダースの犬
風流上州男

交際가마음든 はれやか

朝鮮映畫 薔花紅蓮傳
三月一日부터晝夜六日間特別大公開!

冷藏庫의秘密
그날의眞心
桃花劇場 麻浦桃花洞 電龍三三番

童話

五千兩에산거북

崔秉和

옛날 노춘(魯春)이라는 젊은 사람이 잇섯는데 부모에게는극진한 효자이고 또 마음이 퍽 어질고착하야 하는일마다 여러 사람에게 충찬을 바덧습니다.

어늬날 노춘이 아버지께서는 노춘이에게 돈 오천량(五千兩)을 주시면서 강건너마을 한백화 되는곳에 잇는 논과 밧을 사놋코 오라고 말슴하시엿습니다. 노춘이는 즉시 부모님께 하직인사를 올리고 길을 밧비 떠낫습니다.

얼마후에 강가 나루터에 와보니깐 몃칠전에 심한 장마로 강물은 몹시 불러서 바다물가티 물결이 출넝거리고 감금 싯벌건 진흙물에 석겨서 집은커녕 재목이 둥둥 떠내려왓습니다 강물에는 배하나 떠잇지안코 강건너가랴는 사람들도 멀건이 서서 물구경만 하고잇다가 되도라가는 형편이엿습니다 노춘이도 집으로 도라갈가 하다가

『그많은 갑이사서뭘니기쉬우니 속히가야한다』하시는 아버지말슴이 떠올라서 강아래로내려가면서 건너가는배를 찾저보앗습니다만 얼마를 내려가다니깐 저아래쪽에서

『배떠남니다』어서 오슈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배사공의 손짓하는것이 보이엿습으로 노춘이는 급히 그곳으로 뛰어갓습니다 그때 저쪽에서도 원 사람이 급히 뛰어오다가 돌부리에 치여서 너머저자 질머진 양철통이 떨려지는바람에 그속에잇든 거북다섯마리가 툭튀여나왓습니다. 너머진사람은 옷에무든 진흙을 씻을생각은 안이하고허겁지겁거북을 집어담엇습니다 그거북이 엇더케큰든지 멧돌만하엿습니다 노춘이는 하도 이상스럽고 신기하야

『여봅소! 이거북은 몃해나묵엇습니가?』하고 물엇습니다.

『이거북은 천년묵은 거북이요 이거북의 산피는 만병통치(萬病通治)이라 지금 서울로팔너가는길이라오』하고 묻지안은말까지 하엿습니다. 그때 거북들은 그사람의말을 알어드럿는지 두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리고 얼골에는 몹시 슬퍼하는빗치나타낫습니다. 그리고 노춘이를 처다보고 살녀달나는듯이 고개를 쑥!내밀고 처다보고잇섯습니다.

이것을본 노춘이는 원체 남을불상히 역이는 마음어진사람이라 그 팔녀가는 거북이 가엽시보엿습니다. 그러하야 거북주인을보고

『여봅소! 이 거북가시 얼마나됩니가?』하고 물엇습니다.

『왜갑을 무르슈, 당신이 사실생각이잇소. 그러나 이것은 갑이원악 빗싸닛간 말할수업소』하고 노춘이의 아래위를 훌터보앗습니다.

『한마리 백량식 오백량이면 파시겟습닛가?』

『여보 천년묵은 거북을 백량에팔다니. 어림업는소리 하지말고 어서 배나 탑시다』하고 배에 오르려고 하엿습니다.

『그러면 천량드리지요』

『천량에도 팔수가업소. 서울가서팔면 천량에 몃갑절을 바들는지 알수업는것을……』

『여울하시면 삼천량을 드리지요.』

『아닐말이야요』

『정 그러시다면 오천량을 드리지요』이말을드른 그사람은 한참 생각하는듯 하더니

『가저가슈, 젊은친구가 여러번 말을 하는데 어듸이사에돼소, 좀밋지지만 파는거요』하고 돈 오천량을받고 거북 다섯마리를 노춘이에게주고 그사람은 배를 타고갓습니다. 노춘이는 거북을 한참 바라보고나서는 강물에너어주엇더니 다섯마리 거북은 고맙다는듯이 물위로 고개를 몃번이나 내밀면서 노춘이를 처다보앗습니다.

노춘이는 거북을내려다보다가 생각하니깐 큰일낫습니다. 논밧살돈 오천량으로 거북을삿스니 오도가도 못하게되엿습니다. 목이말너서 어느동리주막집에가서 물을 어더먹고잇스랴니깐 술먹든사람들이 이런이약이를 하엿습니다.

『여보게! 조곰전에 압강에서 배가업퍼젓다니 정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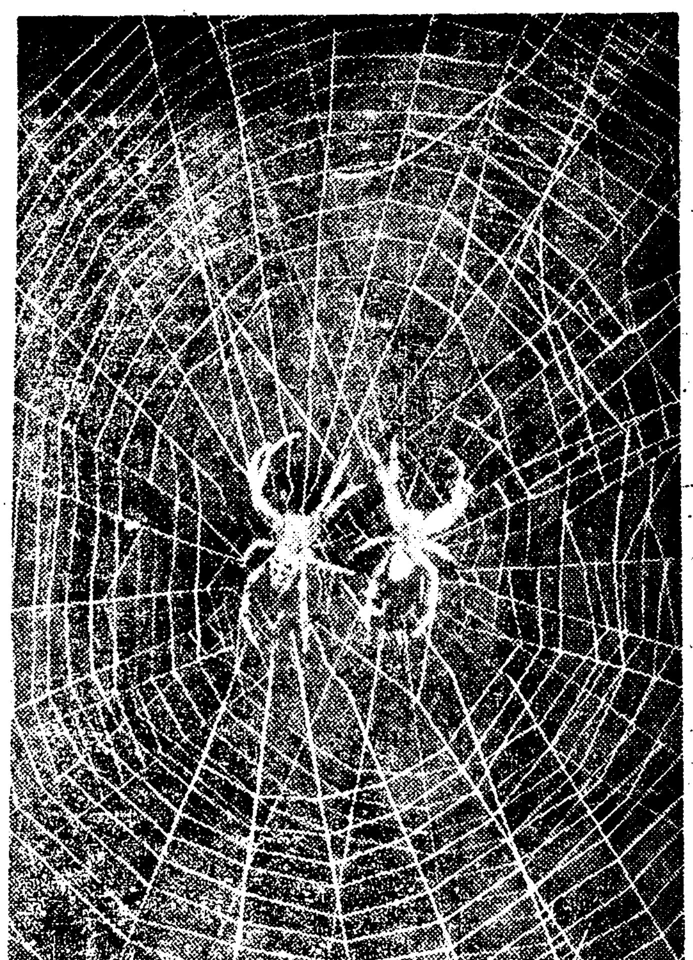
『웅, 나도보고온길일세, 글세그세찬 물결을 건너가다니 말이되나 밋친놈들이지』

『사람이 몃치나죽엇나』

『사공하나 일곱사람인데 그중의한사람은 돈오천량을 가저갓다네 그려』하고 사람이죽은것보다도 돈이물속에잠긴것을 원통하다는듯이 말하엿습니다. 이말을드른 노춘이는 그배를타고갓드면 고기밥이되엿슬것을 생각하고 돈오천량으로 거북을산것을 도리혀다행으로 생각하고 급히 집으로뛰어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북산이약이와 그배를탓드면 죽엇슬 약이를 다하엿드니 아버지께서는

『그게무슨소리냐? 조곰전에서 겻업웃동리에사는 다섯사람이 도전량식 뚜고가면서 이것이 댁의 돈이라고하고 가든데 이것이엇떠케된 노릇이냐?』하고 아버지께서도 다행스럽고 신기하게 역이시고 그다섯사람은 틀림업는 거북들이라고 생각하시엿습니다.

노춘이는 몃칠지나서 강에물이준다음에 배를타고 건너가서 논과밧을 싸게샀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쫙! 퍼저서 그때사람은 누구한사람 노춘이를 몰르는사람이업시 되엿습니다. (끗)



이상스런 일도잇다
헛개비에홀린거미

거미가 줄을 치지안습니까 줄을치는까닭은 더말할것업시 날벌려지가 날려가다가 걸리면 잡아먹겟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미가 거미줄치는 바로가차히커다란체경을 노아보앗습니다 그러니까 거미는 영문도모르고자기와 꼭가튼놈이자기 그물바로압헤 줄을치고잇스니까 자긔일에방해를한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며칠이가도록 싸우지요 암만싸운대스자 꼿이나겟습니가 달려들면 저쪽에서도 달려들고 이쪽이지처서 가만잇스면 저쪽에서도 가만잇고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던지 마음이 노이지안코 저쪽놈을 업새 고집니까 작구만 작구만달려들게되는 모양입니다

조회시간

봉남이는 밤에 어듸를 가라면 밤낫 무섭다고 하니 무엇이 무서우냐?

범이 무섭고 사자가 무섭다고 해도 동물원에 가보면 사람에게 붓들리어 우리ㅅ속에 가치어 잇단다.

범이나 사자보다도 무서운것이 사람이다.

독갑이가 무섭고 앙광이가 무섭다고 해도 그런것은 예초부터 업는것이니까 상관이 업단다. 독갑이나 앙광이를 무서워해서는 문명한 사람이 아니다.

밤낫 무서워 무서워 하니 남들이 겁쟁이 못난이 빙충이라고 놀리지 안늬. 동무들에게 그런 챙피를 당하고 모냥이 되엇늬? 마음을 용감하게 먹고 컴컴한 밤에 썩 나서 보아라 아모러치도 안치 순득이나 올순이처럼 말야.

그러치만 무서운것이 꼭 하나잇느니라. 그건 무언고 하니 어른들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잘 안드르면 어른들에게 걱정이나 꾸중도 듯고 또 나중에 커서도 조흔사람이 못 된다. 정작 그런것을 무서워 해야 한단다.

팽켄군의원숭이잡이

金湘旭

萬國서울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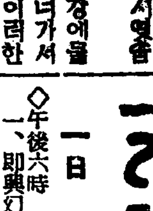
불란서서울 파리

꽃의서울 파리로 왓다. 과연 꽃의 서울이라고 떠들만큼 시가며 도로며 아름답고 공교하게 맨들어 노핫다. 파리의 주위로는 본래 성(城)이 잇섯드란다. 대전후 만히 헐러 엇스나 아즉 일부분 남아잇서 녯날의 파리를 이야기해준다. 인구는 삼백만이라 론돈의 반이 채못 되건만 교통은 론돈보담도 더 편하다 파리의 택시가 좀 지전붓은 하더라만은 갑도 싸고 또빨러서 그역시 해롭지 안타. 파리에서도 제일 유명한 곳은 아마 두곳이리라. 첫재에 트알의 개선문근처니 열두가닥의 길이 손사래가티 벌린 장한 건물들이 탑을 중심하고 강우에벌리어 잇는중 다중에도 모든 길이 한결가티 정제하고 둘째는 세누강까의 엣펠탑근처니 화려하고도 핑시강아래로비치어 별세게를이루는것이다. 그외에도 빼노치못할것은 콩콜드광장이다. 이광장은 세게중에서 가장아름다운 광장으로서 불란서의 장우에서 일어 낫다고할만큼 조코 낫븐 일이 만히 이광장이 력사적으로 의미기픈 광장이다.

(사진의공중에서본『파리』)

송곳으로벼룩을잡은
박태보의이약이

숙종때 박태보(朴泰輔)란 어른이 게시엇섯다. 그어른은 상감님의 잘못하시는 일을 바른말로 간하다가 돌아가신 충신이다. 그어른이 열쌀도 못되얏슬때 하로는 그아버님이 대궐을 들어 가시느라고 방을 비어노치 안햇겟늬? 그랫다가 나종 나와보시니까 방안의 장판이 뿅뿅 구녁이 돌리어 한곳 성한곳이 업더란다. 고만 그아버님이 화가나서서 상노, 청직이를 모조리 불러노코 꾸중을 안하섯겟늬? 그들은 모도다 도련님이 하신짓이지 저의들은 모릅니다고. 명을 하더란다. 그래서 나종에는 아드님을 불러 노호시고 왜 그랫느냐고 걱정을 하시니까 송곳으로 벼록을 잡으려다가 그랫습니다고대답을하섯거든. 송곳으로 벼룩을 잡다니 잡기를 어떠케 잡느냐고 다시 걱정하시니까 처음에는 한번 시험삼아 본것인데 이왕 잡으려든것을 고만두기 어려워서 꼿꼿내 잡기 까지 쏘차 다니엇습니다고 엿줍더라지 그 아버님도 그 뜻이 쓸만하다고 고만 용서해 주시고 말앗다. 그 어른은 어려서부터 그러케 결지가 세고 마음이 단단하든 모양이다.



라디오

一日(日曜)

◇午後六時 피아노獨奏 一、即興幻想曲……쇼팡作曲 二、練習曲……作品二五의九 三、헝거리舞曲第五……브람스作曲 四、화려한大圓舞曲……쇼팡作曲 作品十八 金炯珪
◇同六時二〇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記念講演 滿洲國建國記念日을當하야 全聖旭
◇同七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가)短歌滄浪歌 (나)唱劇調赤壁歌 姜太弘 鼓手 韓成俊
◇同八時 라듸오·드라마 喜劇『장님打鈴』全一景 (配役)林奉事…金海雲 朴氏…崔庚善 客甲…李慶星 客乙…吉七水 客丙…金純英 放送劇新人會 演出 李如水 效果 朴斗星
◇同八時四〇分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유산가 三、달거리 柳開東 李飛鳳
◇同九時 宗教音樂 一、合唱 (가) 내主를가까히…월손作曲 (나) 致賀하세…에셀作曲 二、獨唱『아베마리아』…슈버트作曲 (李順甲) 三、合唱『天主를讚揚함』…구ㅣ노作曲 四、獨唱『새예루살렘』…아담스作曲 (李仁德) 五、合唱『主를讚揚하라』…아슈프ㅣ드作曲 六、피아노獨奏『前奏曲』…라하마니노프作曲 (金信福) 新門內讚揚隊 指揮 金亨俊 피아노伴奏 金信福

第一放送

◇午後一〇時 朝滿交換放送 指揮雅樂師長 咸和鎭 李王職雅樂部員
◇午後六時(大) 라듸오遊戲
◇同七時三〇分(滿) 滿洲音樂
◇同八時二〇分(東) 落語
◇同八時五〇分(東) 사랑의法則

二日(月曜)

◇午後〇時五分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孔明歌 四、山念佛 五、노래가락 白牧丹 鄭錦紅
◇同三時一五分 食物講座(第三回)『調理理論』(一) 金浩植
◇同六時 童謠와唱歌劇 一、童謠 (가)、齊唱방패연 (나)、同쪼꺼난동생 (다)、獨唱집업는고양이 (金福任) (라) 齊唱집보는소녀 白鷗會 指揮 林炳裕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許然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原始人의人生觀』 趙炳俊
◇同八時 音律『錦山會像』 玄琴李彦植 洋琴李承煥 奚琴池龍九 短簫洪斗憲 細笛鄭載弼 杖鼓 李章夏
◇同八時三〇分 古談『夢中奇緣』 車靑吁
◇同九時 流行歌 一、어머님품으로(金貞) 二、新春(李) 三、떠나가신님(金) 四、眞城의봄(崔) 五、靑春의『라데뷰』(金貞) 六、눈물의港口(金) 七、섬색시(李) 八、청야라打鈴 金貞九 李花子 金蘭秀 崔仙 伴奏 DK管絃團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 婦人時間
◇午後〇時〇五分(德) 婦謠
◇同一時(東) 婦人時間
◇同六時(名) 發明物語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東) 合唱 詩吟 義太夫 浪花節

三日(火曜)

◇午後〇時五分(東)器樂獨奏 一、크라리넷트 二、색소폰 三、풀룻 進五郎 마리아노、마우라원 岡村雅雄
◇同三時一五分『히나마끄리』이야기 趙圻烘
◇同六時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스위스』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道德上批評』 吳基先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迎春하는動物이야기』 趙福成
◇同八時 春踊歌外 一、春踊歌 二、저격歌 三、각간이打令 四、悠悠制恨 五、孤獨의怨恨 曹松岡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伽倻琴 金文春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羽調酒擧 二、羽樂 三、環界樂 四、界樂 五、編大笒 朴在順 洋琴 金相淳 金永根 杖鼓 金一宇 金蒼紅
◇同九時 連續唱劇調『興夫打令』(一)ㅡ興夫집터다는데ㅡ 金昌龍 鼓手 丁元燮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名) 婦人의時間
◇午後〇時五分(東) 器樂獨奏
◇同二時 家庭講座
◇同六時(東) 이야기
◇同六時二五分(東) 靑年의時間
◇同七時三〇分(釜) 講演
◇同八時(東) 狂言
◇同八時二五分 맨도린 기타ㅡ
◇同九時(大) 歌舞伎劇ㅡ

異次頓의死 【107】

李光洙 作 金奎澤 畵

『그런데』하고 버들아기는 말끗을 흘려,

『어제ㅅ밤에 하도 이상한 일이 잇서서, 그래서잠을 일우지못하엿소』 하고 고개를 갸웃한다.

『무슨 일?』

『무슨 일이오?』 하고 달님과 별님은 눈을 크게 뜬다.

『밤에 자라고 옷을 그를 때에』 하고 버들아기는 매오 긴장한 태도로,

『시녀가 와서 평양공주마마께서 부르시니 잠깐오라 하기로 옷을 다시 입고 평양공주마마겨오신 데로 갓더니 공주마마께서 꿀물을 주시고먹으라기로 마시고, 먼나라에 와서 집생각이 나나지아니하느냐, 여긔 잇서서 비편한것이나 업지아니하냐 잡이 아니오고 이야기나 할까하고 불럿노라 그러시기에, 황송하오. 늙은 부모 생각이아니 날 리야 잇소리까 마는이나라에 온 뒤로 상감마마 왕후마마께오서와 꽁주마마께오서 이 미천한 몸을 극진히 사랑하시와 집에잇슬 때보다도 더욱 질겁소, 하고 아뢰엇소. 그리 아뢰엇더니 꽁주마마 말슴이 들으니 네가 이차돈을 사모하야 신라까지 따라왓다 하니 이차돈이 네 집에 오래 머물럿느냐 하시기에 이차돈서방님은 이몸의 아비를 찾아 멧번 이몸의 집에 온 일은 잇삽고 이몸도 한번 아비의 명으로 인사들인 일은 잇사와도 이차돈이 이몸의 집에 머문 일은업고, 하고 바른대로 아뢰엇더니, 꽁주마마 말슴이 그러면 너는 이차돈과 동침한 일이 잇느냐 하시거로, 아니오, 꿈에도 그런 일은업소 하엿더니, 그러면 달님은 평양에잇을 때에 이차돈과 동거하엿느냐, 하시기에 이몸은 이차돈이 강을건너실 때에 강변에서 처음 만낫사옵고 그전 일은 모르오 하엿더니, 그러면너는 반달이라는 게집의 말을들엇느냐, 하시기에 들엇소, 하엿더니, 그 반달이란 게집은 이차돈과 동거하엿느냐, 그러시기로, 동거여부는 이몸은 모르오나 이차돈이 중이 되기까지반달의 아비 거울보고의 집에잇섯다는 말을 들엇소, 하엿더니 꽁주마마 말슴이 이차돈은 이몸의 남편이니 너는 다시 그를 생각하지말고 또달님과 별님을 보고도 다시는 이차돈을 생각하지말라, 그러시고는 눈에 무서운 빗을 띄우기로 이몸은 무엇이라고 대답할바를 몰라서 그저 압헤 업드려서 황송하오하고는 물러나왓는데, 나와본즉 달님은 벌서 불을 끄고 주무시기로 혼자서 잠을 일우지못하고 웬일인가, 웬일인가, 하다가 달님께서 불을 켜고 일어나신듯십기로 이러케 자리옷 바람으로왓소. 그 원 무슨 말슴일까』

하고 설명을 기다리는드시 달님과 별님을 번갈아서 바라본다.

달님도 어안이 벙벙하야 한참 동안 말이 업다가,

『그러면 그 어른이 평양공주부마가 되시거로 작정을 하섯나?』

하고 별님을 돌아본다.

『설마, 서방님이』

하고 별님은 고개를 숙인다.

『그래도』

하고 달님은 싫심한드시,

『사람의 마음은 물론 되엇다 공. 상감마마께서와 중전마마께서와 꽁주마마께서와 조르시고 조르시면 아모리철석가장인 이차돈서방님이라도 안 넘어가기는 어려우시련든』

하고 한참이나 멀거니 생각하다가,

『그나그뿐인가. 나라 형편이이차돈서방님이 얼른 부마가 되시고 태자가 되시지 아니하면 선마로이손이 임금의 자리를엿본다는것은 세상이 다아는말. 선마로이손은 소문난 욕심많은 어른. 아마도 그래서ㅡ서방님께서도 생각다못하여서, 사양타 못하여서 평양공주부마가 되시기로 허락을 하신모양.』

하고 한참이나 눈을 감고잇다가,

『그러키로 설마. 그러키로 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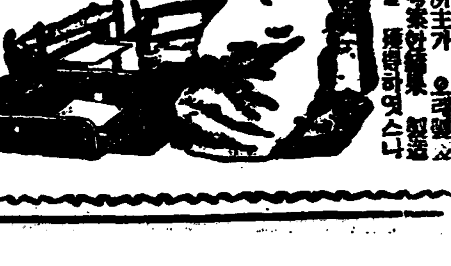
하고 별님의 어깨에 쓸어지며 운다.

별님과 버들아기도 운다.

☆曆☆ 三月二日(月) 二月(陰)辛卯小(九日) 癸未·木·張·執
●驚蟄六日(舊十三日)
●春分十八日(舊二十一日)

副業에紙袋製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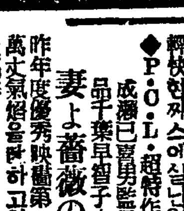
江商製袋工業所



痔疾 오세코 치센
치질藥으로
全國各藥店에잇슴 0·30 0·50

第一劇場 鍾路四丁目 電光二五五番
二月廿八日부터五日間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七時始映 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封切
廿世紀映畵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 알와ㅡ카
◎로스챠일드
로ㅡ키ㅡ始作된以來의大作은이映畵로銀行史의第一頁ㅡ猶太人과그리고ㅡ나보레온의歐洲征覇그리고退敗ㅡ英國靑年貴族과猶太人의家庭에서태여난게집아히와의사랑ㅡ아직도그이름이世界에서부르고잇는大로스챠일드의豪華한第一步의映畵化
第一映畵社超特作全發聲
눈물의어머니 英百合子 九山定夫主演 木材莊十二監督
喜劇 모단化牛二人連
次週豫告 すみれ娘
밤 未來化의女學生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六
◎父歸る母の心 原作 菊池寬 監督 寺門靜吉
人氣王天光軒滿月口大演


はれやか
먹고서能率이놉하다
(頭腦明快劑) 0.30 0.50 1.00

三月一日낫부터晝夜六日間特別大公開!
料金 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낫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朝鮮映畵京城撮影所第三回作品全發聲版!!
監督 洪吐夢 撮影 李明雨 錄音 李弼雨
薔薇紅蓮傳 올스타캬스트
薔薇와紅蓮이는裵坐首의딸로태여그린것이업시자라나더니업죽이어머니를여이고不幸히繼母를맛낫섯다繼母는自己가데리고드린은子息長釗에게裵家財物을물녀주라는慾心에奸狡한手段으로裵坐首를속여薔薇와紅蓮의姉妹를謀害하야죽이니呼訴한마대못하고억울히죽은薔薇紅蓮을世上사람은不詳히아라주기는고사하고오히려奸惡한繼母의塗糊하는말만고지이들어不詳히죽는姉妹를辱하는사람이만헛다는지나간어느時節에平安道鐵山고을에일어난이야기이다

二月廿八日特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半、午後二時半、六時廿分
◆코럼비아社超特作映畵
巨匠요셉·폰·스탄빠ㅡ크監督 文豪떠스토이에푸스키ㅡ原作 메타로ㅡ레이 主演
罪와罰
世界文壇에驚嘆의旋風을이르키는名作!그리고다시映畵藝術의精華로서光輝잇는神品이誕生되다!
◆코럼비아社超特作映畵 안사잔 主演 珍優나포레온
◆P·C·L·超特作映畵 輕快한짜스에실니인音樂喜劇의粹 成瀨巳喜男監督作品 千葉早智子主演
昨年度優秀映畵第一位選映畵 萬丈氣焰을吐하고잇는日本映畵의最高作
妻よ薔薇のやうに
(次週封切) 따이아몬드、젝、大陸非常線、わたしがお嫁に行ったなら
映畵殿堂 鍾路第一 團成社

待望의怪魔術活劇大封切! 二月二十九日부터特別公開週間
豫告!事情에依하야一回始映時刻을左記時日間만變更하나이다 自二月二十三日 至三月六日 第一回始映時間 午前十一時二十分부터
米國뿌랜드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레에때이머ㅡ氏監督
찬도의復讐
에드우인마ㅡ린氏大作品
錦道의銃彈
大都映畵特作現代劇
お好み串差おでん
吉村操氏監督 佐久間妙子、伴淳三郎 大岡怪童 大共演
黃金町 電光三三九五 優美館

麻浦桃花洞 電話龍山一三三三番 桃花劇場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西部活劇 冷藏庫의秘密 監督 랄프마이호氏 主演 사리차트이란氏 리아이라스氏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戀愛劇 그날의眞心 監督 후랑크캬푸라氏 主演 와나바스氏 마ㅡ나로이氏

地方論壇
永安幼稚園의 經營難을 듣고
永安支局 一記者

우리 永安은 新興地帶인것만큼 다른 地方에 比하야 適切히 施設을 要하는 問題가 만흐며 우리의 物心兩面으로 解決을 기다리고 잇는 問題도 또한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 만흔 問題中에 가장 焦眉의 問題는 未來의 일꾼 어린이들을 敎育하는 幼園의 維持問題다 人生一生의 人格形成上 決定的이오 生活行路를 支配하는 이 幼年時代의 敎育의 必要야 이제새삼스러히 贅說할 必要도 업거니와 이러케 貴重한 어린이들을 維持하는 幼園이 아니고 우리 社會事業에 至重한 機關이라 아니할수 업스며 더욱이 戶數 一千이 넘으나 普校하나도 업는 우리 永安에 至重한 機關이 아니고 무엇일가。

그런데 이 幼稚園은 昨年五月 永安基督敎會 主催로 設立되야 將來 維持하야 오는바 設立當時의 敎會堂으로보면 一般이 共認하는바와 가티 敎會堂으로만은 充分하나 兒童에게 가장必要한 運動場의 狹窄으로 完全한 敎養을 시길수 업서서 不得已 地料의 山麓에 敷地를 定하고 敎會堂과 함께 移轉을 보게 되엿다 元來 敎會로 보면 財源이 그리 넉넉지 못하야 移築當時에는 信者로 男女老幼를 勿論하고 移築費의 幾分을 負擔하기로하야 數十餘日以上 모다 總動員이 되어 가면서 築造에 着手하엿스나 생각건대 이것은 敎會當局自身 보담 兒童에게 完全한 保育을 期하겟다는 一念의 熱意의 發露이엿던것이다 그리하야 敎會로서 이 偉大한 社會事業을 經營함에 "自己네의 主張하는事業은 自己가 하겟다"는 信念을 가지고 이에까지 이르럿스나 그들의 熱誠도 窮乏도 짓밟혀 지는것이 다만 金錢問題이엿다 移築에 依한 負債가 二百餘圓 그後 今日까지의 幼園維持費로 물지 못하고잇는것이 近百餘圓 合計 三百餘圓의 負債를 지게되엿스니 不過 四十餘名의 信者요 더욱이 擧皆가 貧寒한 굼주리고잇는 그들 信者로서만 엇지 이 負債를 헤치고 나갈수잇켓스랴 그들은 가진努力을 다해 가면서 財政難에 맛서하여 왓스나 나날이 자라는것은 負債의 몸이다 그리하야 及其也 今日에 至하야는 負債에 시달려 永安의 幼稚園 要機關인 幼園의 維持를 이리 暗影에서 그 明影을 사라트리지 안흘수 업게되엿다하니 이것이 될말인가

永安人士諸氏여! 共鳴할지어다! 이 시들려하는 아리다운 「싹」을 붓드러주기로하자! 아모리 이 幼園이 基督敎會主催로서 가른 敎理를 밋지안는다 하나 對岸의 火災視한다는것이나 리니 敎會移築이 幼稚園을 爲하야서의 移築임이 明瞭한 일인데 多少의 負債를 모른다함이 어마나 우리의 不相關事이 아니고 무어이라 비록 主催만은 敎會의 主催이나 幼園만은 우리 全民의 一般의 事業임이 明瞭한 일이 안는가 그렇지 反省하라 「그들까지 數하는事業이니 幼稚園이 우리에게 有關해」고 하리라 그러면 다시 뭇노니 敎會以外의 우리의 손으로 이것을 다시 新設할 能力이 잇느냐? 적어도 千圓以上의 基本財産을 積立하고 따라 維持費로 月幾十圓이란 巨額의 財源을 내일만한 自信이 잇느냐 그는 決行理論으로는 可望이 잇다하여도 實行함에는 幾圓以上의 幾圓일것이다。 願컨대 永安人士여! 反省하고 事業하자 結局 幼園이 誰某의 主催이든 事業에는 勿論 敎會에는 우리 永安의 會의 今日것 모든 幼稚園을 으로 諒解하고 다만우리 永安의 理想적인 어린이 保育機關이 쓰러저가는것을 共鳴하고 하로바비 畫策하야 幼園에 덥힌 暗影을 努力하여주기를 바란다 이제 本報永安支局에서 斡旋하야 「幼園後援會의 밤」을 東興 中央 朝鮮三支局主催로 近近開催하고 널리 이 쓰러 現狀을 報道하야 一般的으로 熱熱한 物質의 寄附를 엇고저하며 幹하야 有志人士의 絶大한 貢獻과 將來더욱더욱 深切한 援을 바라고 擱筆한다。

—(끗)—

第四次文川赤農事件
最高四年最下一年
執行猶豫는 一名도 업서
廿九日 咸興法院서 言渡

【咸興】 제사차문천적농(第四次文川赤農)사건 리영수(李永秀)등 오명에관한 언도는 이십구일오후한시부터 함흥법원에서 명곡(名谷)판사의주심과 대정(大町)검사의 립회로 개정되여 다음과가티 최고사년 최하일년의 판결이 잇섯는데 집행유예는 한명도업섯다고한다

	言渡	求刑
李永秀	四年	四年
鄭鶴龍	一年	二年
鄭均三	二年	二年
鄭寅洙	一年半	二年
公昌甲	二年	二年

(未決通算九〇日)

全州에寒心한 初等敎育機關
第三普校의急務

【全州】 지난 이월이십구일은 시내세보통학교입학전수 마감날이엿는바 이제 각보통학교별로지원자수를 보면

學校名	募集兒童數	接受人員
第一普校	一八〇名	二四〇
第二普校	一二〇	二六〇
女子普校	一八〇	二八〇

이상과가티 전아동 사백팔십명 모집에 칠백팔십명의 지원아동이 잇스니 남어지 삼백명은장 이십팔명은 매년무지에서 헤매고잇게되니 이과연 식자의우려할 것이가 이제 한거름더나가 전주부내 전인구의 학령 아동수를보다면 오천십삼명이라고한다 그중에 현재적생

第一普校	八一三
第二普校	七九二
女子普校	八〇〇

이상이천사백오명으로 금년모집 아동사백팔십명을합하고 기타시내이삼사립학원에 수용되아동을 천으로 산하다하여도 이천이백바가아닐가 이제전과 이천여미취학아동중에 적빈가정의 아동과 불구자를천으로 제한다하여도 일천이삼백명은 꼼작못하고 학교수의부족으로인한 입학난에 서한숨으로 지내일수바게업스니 이제 이남은아동수로만 하여도 십이학급을가질 제삼보통학교하나가 떠잇서야 되겟다는 사만 부민의 요망은 충천에사뭇첫다

府議員 朴泳恩氏 談 전주에잇서서 초등교육긔관에대한 불충실한점은 일즉부터늣긴바입니다 금번전주부 초대의원으로 출마할때부터 나의곳게곳한 바는 전주부민의 대변자로서 엇더케하든지 보통학교하나를 더설치하도록 힘쓰겟다는 뜻이엿슴으로 나는압흐로 제이공부보로 모힐때마다 전주에 제삼보통학교하나를 설립하도록 노력하고저합니다

咸陽邑內에大火
五戶八棟이全燒
損害額은約二萬圓

【咸陽】 지난 이십팔일오전 다섯시경에 함양읍내 하동(咸陽邑內下洞) 건산려관(建山旅館)에서 발화하야 삼시간에 린접가옥에까지 불이붓기시작 하엿다 때마침 이러난풍세에 화염은 더욱 맹렬하야 건산려관의 이층 건물을 비롯하야 오호팔동이 전소되고 말엇다。그리고 개와 도야지도 타죽는등 일시대혼잡을 이루엇다가 오전열두시경에야 겨우 진화식혓섯다 원인은 건산려관의 화로에서 실화되엿다하며 손해액은 이만원가량되나보험(保險)계약금액은 이천원밧게 아니된다고한다

安州邑內에서도
三棟三戶全半燒

【安州】 봄철을 당하야 안주읍내에는 화신이 작희가비비하야 인심을불안케한다 지난이십칠일 안주공립보통학교 농구고(農具庫)이간이 전소되바 잇섯는데 또다시 이십팔일 하오구시경에 안주읍봉산리(鳳山里) 인성운송점(仁成運送店)에서 발화되야순식간에 동점을 전소하고 이웃집인 장긔진(張基珍)면옥을 반소하얏다하며 그외에도 김병하(金秉夏)약방에 연소하자 소방수의 노력으로 동십시경 진화되엿다는데 그손해는 자세히알수업스나 약이천원가량이라하며 발화원인은 아마실화인듯 하다고한다

敎育問題講演會場光景 (安岳支局)

다시금曙光비친
信川″農民學校″
十七萬財團으로甲種昇格提願
教室增築、講堂을新設

【信川】 신천군 신천읍 온천리 신천농민학교(信川農民學校)이엿든 농민학교(農民學校)는 고황재택(故黃在澤)씨가 [illegible] 사업으로 [illegible] 그차자(次子)인 리수국(李範漢)씨와 장손(長孫)리계천(李鑽天)씨 숙질(叔姪)간에 협력하야 동교를경영케되어 작년사월에 십이만원의 재단법인 인가를어더 학교긔초를세워 경영하여오든바 금번양씨가 또다시 뜻한바잇서서 각하이만오천원식을 희사하야 십칠만원의재단법인으로 종전수업년한이개년을 오개년제로 곳처 갑종인가를 엇고저 만반의 준비를다하야 발급학년개정을 제출하엿다는데 금번의 오만원으로 교실증축 강당신축기타 여러가지 설비에쓰라고 작정되야잇다함으로 일반은 양씨의선사를 찬양하며 동교장래에 만흔긔대를 갓게되엿다고한다

大浦漁業組合
總代總會盛況

【大浦】 강원도대포(大浦)어업조합에서는지난이십팔일에 정긔총대총회를 조합창고재동 (高城東) 씨의 사회로 개최하고 리사 서도 (西島)씨의 거년도 사업보고를 필두로 소화십일년도 사업계획급 경비예산에 대한 긴밀한 설명하에 원만히 회의를 맛치엿는데 결의된 의안은 다음과 갓다 한다

▲議案
一、昭和十一年度事業計畫及經費豫算의件
一、昭和十一年度經費賦課徵收方法의件
一、昭和十年度事業計畫及經費豫算追加更正의件
一、監事選任의件 監事 鄭珠碧 中村重一 金南植
一、漁業權及不動產取得에關한件
一、國庫及道費補助申請의件
一、起債及其償還方法의件
一、漁業組合規約變更의件

亡國病結核患者
咸南에五千餘名
◇……肺結核患者만二千六百餘名
工場街化가唯一原因

【咸興】 작년말현재 함남도내결핵병(結核病)환자는 총오천삼십사명으로 그중 폐결핵환자가이천육백팔십팔명의 과반수를 점하고잇는데 이는 함남도가 근래공장지대로 약진에따라 불결한매연과 공긔가 중대원인의하나이라고한다

江西郡下에서도
草家一戶全燒

【江西】 지난이십팔일오전열한시경에 강서군 함종시장 곽련모(江西郡咸從市郭璉模)의 집에서 백주에 불이이러나서 초가일호이동을 전소하엿다 함종소방조의 노력으로진화하엿는데 손해액은 이천여원가량이며 출화원인은 실화로 판명되엿다한다

安岳高等普校
期成會事務所
″楊山商會次家″

【安岳】 안악고등보통학교긔성회에서는 만반준비를 대강정리하고 상무를보기위하야 지난이십팔일저녁 일곱시경에 양산상회(楊山商會)에 상무위원이집합하야 제반결정을 지엇는데 그중의요점은 상무위원은 매일가티 양산상회집을 빌려 사무소를 정하고 낫에는 출근식으로 상무위원전부가 출근케하고 밤에는 야근까지 하기로하야 사무처리를 철저히 할모양인데 누구나 잇는분은 전부 전긔사무소로 래문의함이 잇기를 바란다고한다

工事平壤의大景氣
解氷期도不遠한時日
함머ー聲은이로부터
―勞働界도多少潤澤―

【平壤】 해빙기도 가까운 평양에는 건축과 토목공사로 상당히 분망을 느끼겟고 따라서 공사비의 산포도 막대한 액에달하여 로동자의 주머니도 다소 윤택하게될것으로 예상되여 곳곳에서 「함머ー」의 소래가 요란하여 공사평양의 경긔제적을 울리게 되엿는데 이제 중요한 공사를소개하면다음과갓다

부립공회당(府立公會堂)을 필두로 전화교환국(電話交換局)와사공장(瓦斯工場) 종방공장(鐘紡工場) 식은지점(殖銀支店) 소방분서(消防分署) 방송국(放送局) 무덕관(武德館) 도립의원대병사(道立醫院大病舍) 전매지국서평양공장(專賣支局西平壤工場)등 허다한 대공사가착공될터이라한다

顧問 相島高次 飯沼濤 山田留十郎 丁泰鎭 總務 馬在根 書記 馬白用 安四弘 會計 劉演俊 幹事 朴中善外九人

郵便所設置陳情

【永興】 영흥군 선흥면은 우편소가업서 통신상 여러가지로불편이 만흠을 항상 유감으로생각하야 오든바 지난 이십이일 정오에 시내 한용군씨집에서 지방유지 제씨가모여 우편소설치발기회를 개최하고 대표자 한용관(韓用寬)리석룡(李錫龍)김치주(金致周)삼씨를 선정하야 지난 십륙일에 원산우편감독국에 진정을 하엿다한다

商工都市釜山에
夜間商業校實現
來四月四日부터開校

【釜山】 부산부 초량정(草梁町)에 잇는 흥학회(興學會)에서는 상공도시인 부산부에 상업교육긔관의 대부족으로 장래 상업에 종사하려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배울길이 업서 헤매고잇슴을 일대유감으로 생각하고 야간상업긔관설치를 계획중이라하든바 인가를신청하여 그후 간한결과 요지음 준비가 완료되엇스므로 오는 사월 사일부터 개학하기로 하엿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드건대 명칭은 초량상업학원(草梁商學院)이라 하며 교사는 예정대로 초량사립보통학교(草梁私立普通學校)신축강당으로 하고 수업년한은 삼개년 입학자격은 수업년한이 륙년제보통학교졸업자 우는 동정도의 학력을가진자이라한다 그리고 교수과목은 조선어 상업요항 부긔 공민독본 국어독본 영어 산술 주산 습자 작문등이라하며 입학지원자는소정의입학원서에 입학금삼원 사월분수업료이원을 첨부하야 오는 삼월말일까지에 동사무소로 제출하야 주기를 바란다하며 금년도 모집정원은 칠십명이라하는데 일반부민은 동학원에 장래에 만흔 긔대를가지고잇다한다

公職者懇談會

【元山】 지난이십팔일 오후한시부터 원산상공회의소 루상에서 개최한 제이회 원산공직자간담회(元山公職者懇談會)에서는 원산에 해군항공대(海軍航空隊)설치를 요망하는 진정서를 해군대신 군령부차장 좌세보(佐世保) 사령장관 진해(鎭海)사령관 총독、도지사등 각요로당국자에게 공직자서명으로 제출키로 가결하엿다한다

超滿員의盛況일운
教育問題大講演
本社主筆 徐椿氏의獅子吼

【安岳】 긔보=황해도안악에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고저 그저간 발긔인회를 비롯하야 지난 이십육일에는 긔성회발회식을수천군중이 모혀 공전에 업든 대성황리에 맛치고 그날밤에 예정과가티 정각인일곱시반이 되기도전에 수천군중이 긔정장소인 소천리안악공회당(小川里安岳公會堂)으로 운집하야 전에업든 성황을 일운중 긔성회의장 리시복(李始馥)씨 사회하에 본사주필 서춘(本社主筆 徐椿)선생의 교육대강연이 시작되엇는데 연제는 교육향상보급과 그긔관(敎育向上普及과그機關)이란문제로 장한시 반가량을 계속하얏는바 구절구절에 일어나는박수의 대환호는 천지를진동시기고 동 여듧시에 마치엇다 각계인사수십명은 곳선생의 환영회를소천리김원량(金元亮)씨댁에서 개최하야 안악초유의 성사이엇다고 한다

興湖公普校의
學級增設期成

【文幕】 강원도 원주군 부론면 흥호공보교는 학급이 부족되므로 금춘에 입학할 학령아동수는 백여명에 달하나 삼십오명 밧게는 수용치못한다하야 일반 학부형과 면유지측에서 선후책을 강구하던차에 흥호리공회게에서 금천원을 학교에 의연키로 된것이 동긔가되여 지난 이월이십오일에 면민이 학급보통과 교사증축목표로 긔성회를 조직하야 역원을 선정하엿다는데 씨명은 다음과갓다

會長 黃義民 副會長 韓麗憲

治療費안가저왓다고
應急手當을拒絕
飮毒患者는翌日에畢竟死亡
一般은醫師態度非難

【蔚山】 지난 이십오일 오후오시경 울산읍 우정동(蔚山邑牛亭洞) 리모(李某)(一七)는 어떠한 사정이 잇섯는지 의외에 쥐잡는 독약을 마시고 무한한 고민으로 위독상태에 빠저잇슴을 발견한 그의 부모는 대경실색하야 급히 화계를 업고 울산읍에서 개업하고 잇는모의원(某醫院)에 응급치료를 밧고저하나 의사는 냉정하게도 방금 죽어가는것을 보면서 치료비를 가저오지안흐면 치료할수 업다함으로 그부모는 엇지할수 업서 나와서 겨우 현금 십원을 구하여가지고 그제야 비로소 치료를 하여주며 혈청은 배설이 만원이란 리유로 거절하고 그이웃 모리관에 화계를 옴겨 노코 잇는중 응급수당의 시간이 느진관계인지?그잇흔날 마츰내 사망하엿다는바 그가족들은 물론 일반은 의사의 물인정무책임함에 분개하며 비난이 놉다고 한다。

赤色救援會事件
最高三年役言渡
金道禮等三名에게

【咸興】 홍원적색구원회(洪原赤色救援會)사건 김도례(金道禮)등 삼명에관한 언도공판은 이십팔일 함흥법원에서 평곡(平谷)판사 대정(大町)검사의 립회로 개정되여 다음과가티 최고삼년의 체형이 언도되엿다

金道禮	三年
李仁九	二年半
金亨德	十個月

(未決拘留三十日通算)

出漁四十餘日에
船夫五名消息杳然
遺族들은遭難豫想

【群仙】 대구어(大口魚)를 잡으려고 바다로나간채 사십여일이 되도록 아모소식도업서 가족들을 불안케하는 다섯어부ー함남 리원군선(咸南利原群仙)에서 고기잡이하는 박창수(朴昌洙)(三二)는 지난 일월이십칠일 대구어(大口魚)를잡으려고 선원네사람과가티 배를타고 바다로나간채 지금까지 소식이 묘연하야 가족들은 풍파에 조난을당한것으로 예상하고잇는중인데 더욱그들의 타고나간배는 소형의어선임으로 그들의 생사는 자못우려된다고한다

船主 朴昌洙(三二) 朴有植(三二) 金枝相(二五) 李某(二〇) 尹東雲(五〇)

忠北道廳移轉

【淸州】 금년충북도예산에 십만원을 충북도청이전비로 계상하엿는데 일로보면 충남북도합병을 염려하던문제는 완전히해소되는셈으로 청주주민은 안심을하게되엿다한다

不遇少年金泳鎭
崔氏가引受敎養
本社掲載의記事를보고

【開城】 불우한 천재소년김영진(金泳鎭)(一五)군이 오죽잇고살든 그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이룹이나 시체를 부여안고 울엇스나 누구하나 돌보아 주는이가업서서 마츰내 어린그는 개성(開城)부청에 달려가서『우리 엄마의시체를 좀안장해 주십시요』하고 애원하얏다는 가련한 사실이 지난이십칠일 본보석간에 보도되자 군이 다니든만월공보(滿月公普)에서는 선생들이 긴급회의를열고 천재적김소년을 살려줄 방침을 의론하얏든바때마침 어떠한분이 동교를 차저와서 영진군을 내가양육하겟다는 지망한바 잇섯다。씨는 개성만월정흥삼사(開城滿月町興三社)지에서 송도인삼상회(松都人蔘商會)를 경영하는 최광일(崔光一)씨인데 긔자가 씨를 방문한즉 다음과가튼 [illegible] 태도로 말하얏다。

金孤兒의慈父
崔光一氏談

[illegible]

昨年中林野被害

【咸興】 함남도소관의 국유림총면적은 사십삼만칠천오백여정보로 작년중에 림야피해고는 칠백십칠건에 [illegible] 그금액은 [illegible] 다액에달하는데 피해종별로보면 오벌(誤伐)이 구십오건 [illegible]이라고한다

釜山에染病猖獗
一月末現在患者四十四名突破
其中腸疾扶斯가首位

【釜山】 [illegible] 부산부내에 [illegible] 전염병이 [illegible] 사십사명에 [illegible] 장질부사(腸窒扶斯)가 [illegible]

禮山老人의自殺

【大田】 [illegible]

李漢璟氏壯擧로
東松公普校曙光
宿題의學年延長實現

【鐵原】 철원군 동송면공립보통학교(東松公普校)는 종래 사학년제로 선생이 두분밧게 업섯슴으로 아동교육상 다대한 불편을 늣기든바 지난 이십오일 동교에서 학부형회를 개최하고 학년연장계획에 금칠백원을 계상하얏스나 진출할도리를 찾지 못하야 주저하든중 동송면 오덕리(東松面五德里)리한경(李漢璟)(五〇)씨가 자진하야 금칠백원을 전부 희사하기로 하엿슴으로 일반은 씨의장거를 칭송치 안는사람이 업서서 철원지방에 큰서광이라고 한다고한다

◇寫眞…李漢璟氏

第二人道橋架設外
二十餘件을建議
―平南道會遂閉幕―

【平壤】 평남도회최종일인 이십구일 전심 의안을 일사철리로 가결하고 각의원으로부터 긴급한건의안이 잇섯는데 평양 최정묵(崔鼎默)외 삼의원은 지급히 평양에 제이 인도교(第二人道橋)를 가설하라는것을 위시하여 공유문제 농촌교화문제도로 교량개수문제등 이십여건의 의견가잇슨후 오후 한시삼십분 산회햇다

▲建議案
一、平壤府에 第二人道橋를 架設할것 建議者 崔鼎默外三名
一、朝鮮에 義務敎育을 實施할것 建議者 [illegible]
一、國立商工學校設置를 要望하는件外五件 建議者 [illegible]
一、道內初等學校 學級增加及學年延長을 實施할것 建議者 金秉琬外四名
一、農村의 [illegible] 建議者 李寅鎬外十名
一、自動車定期運轉線路 [illegible] 建議者 韋基瑞外四名
以下省略

三氏救濟에盡力

【高敞】 전북 고창(高敞)지방의 한해 리재민들의 현황은 날로 심각하여 간다는바 동군 성송면하고리(下古里) 김래환(金來煥)씨 동면 암치리(岩峙里) 강대식(姜大植)씨 동리 정동환(鄭東煥)씨 무리식으로 일천오백여원을 내여 구급하는일방 보리와 배실 여석을 내여 궁민들의 목숨을 건저달라는 위탁으로 면에 부탁하엿슴으로 일반궁민은 감사불이라 한다

六萬餘圓豫算으로
產業獎勵館新築
全北道豫算에計上

【全州】 전라북도에서는 산업장려관을 목적으로 신년도 예산중에 륙만여원예산으로 산업장려관을 설치하리라는데 아래층에는 상품진렬소로 대용하고 웃층에는 일반회의실로 사용하리라고 한다

嶺誌事務員의
收單金橫領事件

【金海】 경남김해읍에 본부사무소를둔 영지출판소(嶺誌出版所)의 사무원송세정(宋世貞)(二五)은 작년가을부터 동출판소의 직무를띄고 경상남북도 각방면에수단금(收單金)을모집하러 일부나갓후 벌서일년이 되엿스며 출판에착수하엿든 영지(嶺誌)도 미발간인채 중외에게 예를고하고 수단금을바다 사취한것이 판명되야 지난이월에 김해경찰서고등계의 활동으로 전긔송세정을 체포하야 이십오일간이나 엄중취조한후 지난이십팔일에 금송송치하엿는바 그간 각처로도라다니면서 횡령한금액이 삼백여원이나된다고한다

中等學校卒業式
◇五山高普校…三月五日午後一時
◇高敞高普校…三月六日午後二時

橫領嫌疑로
咸興產組出張所員

【咸興】 함흥서 사법계에서는 수일래에 돌연긴장하여 함북남양서(南陽署)에대하여 함흥산조남양출장소원(咸興產組南陽出張所員)권상호(權尙浩)(二九)를검거압송하여다노코수비하엿는바 이십팔일 함흥서로압송되여왓는데 권상호(權尙浩)는 남양출장소에서 함흥산조의 평과매매에종사하고잇는데 그평과대금중약사천여원을 횡령소비한것이발로된것이라고한다

公普校增築費로
金九百圓을喜捨
大川李經九氏의盛擧

【大川】 보령군대천공립보통학교(大川公立普通學校)는 건축한지가 너무나오래되여서 교실협부가풍우에자연퇴락된 관계로 개축과동시에 교실이 협착하여매년 입학시긔가되면 지원아동의 삼분에일밧긔 수용치못함을 절실히늣기고 항상유감으로 생각하든、지방유지들이 루차회합하여 협의를거듭한결과 증축까지 하기로하고 증축비 륙천여원은 면민이 부담하되 호세등급별에 의하야 배정키로된바 이제동교 학부형회회장 리경구(李經九)(五一)씨는 배정액륙백원이외 삼백원도합 구백원을 긔부하기로 자진승락하엿다하여 일반은 씨에대한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咸山地帶簡易測候所
四月中으로實現
元山測候所에서計畫

【元山】 함남산지대는 다년의랭해(冷害)로 말미암아 산농어빈궁은 그극에 달하야 초근목피로 연명하다가 그도 어들길이 업서서 류리하는자가 만타함은 자조 신문지상에 보도되는바이거니와 이에 원산측후소(元山測候所)에서는 농작물의 풍수해와 랭해의 방지책으로서 함남도 산지대에 간이관측소(簡易觀測所)를 설치하고 천후의이변(異變)에대한 다진파 농작물에 밋치는 영향을 상세히 조사하야 산지대산업의 진전과 계량에 박차를 가해서 산농구제에 긔여코저 다음지대에 구개소의 간이관측소를 신설하는외 그적 사업을 계획중이라는데 도(道)의 인가를 어더오는 사월부터 실시하리라고한다 이리하야 냉해흉은 풍수해등 자연의 풍위에 조우하야 재괴할수업는 산지대 농민을 구하리라고한다

簡易觀測所新設地
豊山郡熊耳面 利原郡施谷面
永興郡耀德面 端川郡水下面
三水郡江鎭面 新興郡新興面
長津郡新南面 長津郡上南面
長津郡東下面

地方人事
▲林鍾駿氏(前東一銀行釜山支店長)退任人事次 本社釜山支店來訪
▲楊山要次郞氏(前釜山稅務監督局長)同上
▲李相勳氏(本社釜山支局顧問)今月二十八日 釜山邑內自宅에서長逝 三月二日永訣式
▲崔享烈氏(前漢城銀行開城支店支配人代理)滿州支店轉勤人事次 本報開城支局來訪